

마테데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존재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만 마음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됨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정제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

신윤식

그때는 왜 몰랐을까
지나고 보면
모두가 은혜라는 것을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으로 주저앉게 했던 일도
원치 않은 일로 인해
아픔과 괴로움이 되었던 일도

세월의 틈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가신
숨은 뜻인 줄 알게 하셨네.

가려는 길 막으시고
가기 싫은 길 가게하시며
높으신 생각으로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역사의 위대하심이니

지금에서야
아! 그랬구나, 끄덕이며
감사한 마음
은혜로 살아왔음을 알게 하셨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2.10.7

발행호수 제20권 41호

신 자는 죄를 물리
친 사람이 아니
라 여전히 죄의 권세로부
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
므로 신자가 모인 교회에
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
생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
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

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예 기독교에 대해 반감
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이것을
대개는 실족이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도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
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고 말씀합니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복과 상관없는 저주 아래 있는 것
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
금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
닙니다. 예수님과 직접 대화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
씀을 실제로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음을 전
제로 한다면 23절에서 말하는 실족은 예수를 잘 믿다가
무슨 일로 인해서 실망을 하고 기독교를 떠나는 의미의
실족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실족의 의미는 욕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한 가지 사실을 확인
하는 것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 보
면 예수님은 다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과
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에 대한 소문은 당연히 온 유
대와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당시 욕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에게 알려
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들은 요한은 제자 중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나이까 우리가**

주일오전설교
눅 7:18-23

예수로 인한 실족

다른 이를 기다리오라이까” (19절)라는 질문을 하게 합
니다. 질문의 의도는 ‘선지자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
라면 우리가 다른 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
해 듣고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생각
을 갖고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것입
니다. 하지만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일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
를 기뻐하노라’ 는 음성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들이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고 외쳤는데 이것만으로도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려
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을 하게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태도 동
일합니다. 마태도 11장에서 누가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
수님을 전하고 있고,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을 대
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차이를 생각해 보면 예
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을 조금은 다르게 이해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
기를 대망했던 사람들이지만 이방인은 메시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이 소원하고 기대
하는 구원의 세계를 실현해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
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세계는 세리나 창기와 같은
죄인들과는 상관없는 세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지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세계일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모
든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
님께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의미의 질문을
한 것을 보면 마태는 율법적 사고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배척하게 되

는 유대인을 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들
로 언급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이방인은 유대인들처럼 메시
아를 대망하지도 않았고, 유대인의 전통인 율법과도 상
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
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렇다면 이방인의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
미암아 실족하는 일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누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메시
아다’ 라는 직접적인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 그
때에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
쳐주시고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셨는데 요한의 제자
들이 보고 들은 그 일을 요한에게 알려라고 하십니다.
즉 그 일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누군
가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되
지만 누군가에게는 예수에 대해 실망하고 떠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하나같
이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
월한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를 더욱 더 강하게 추종하고 따를 것이 분명한데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떠난다는 것입니까? 이방인이 메
시아를 모르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모른다고 해도 질병
과 악귀 들린 자를 고치고 맹인을 보게 하고 심지어 죽
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실망을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한 실족이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대해 의문을 가지거나 실망한 적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없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믿
음에 대해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는 사람들라는 것입
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
지 않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쳐주
시고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 것은 단지 인간의 육

신의 문제를 해결해주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아니라 눅
4:18,19절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일
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주의 은혜의 나라를 이루시
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들이었던 것
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까지
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죽을병에 걸린 사람이 나고,
앓은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는 일들을 경험하
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있긴 하지만 그것만이 믿음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즉 나를 천국 보내주는 구원자
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일을 도우시는 또 다른 예수
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오직 구원자 예수님에게만 마음을 두
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만약 여러분의 삶
에 고통과 아픔의 일들이 겹겹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내게 함께 한다면 나라는 인간
이, 그리고 나의 삶이 달라져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
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달라
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삶도 예수를 믿는 내 마음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통과 아
픔의 일들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에 대
해서 믿음에 대해서 모든 흥미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몸을 이끌고 교회로 나오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금의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는 말
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결과에 대한 희망
을 갖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믿음과 복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복
을 자신의 믿음에 따라오는 결과로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의미로 받아들이
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현대인에게 복은 팔복

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에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는 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수능을 위해서 매일 새벽기도를 하고 많은 액수의 감사헌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에 실패했을 때 다가오는 실망, 그리고 느껴지는 믿음의 무능력, 이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은 실족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 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마음을 두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일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대로 역사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앞서 말한 대로 예수를 믿는데도 나도 나의 삶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모두 생명의 신비를 나타내며 전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고 악귀로 인해 고통을 겪고 맹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 하루 목숨을 이어갈 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구출된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육신이 고침을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는 구원의 경륜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자는 자신의 육신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출하시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구속에 마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 신자를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병이 낫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고 자식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러한 것은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원한다면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헛된 망상이 실족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의 나라를 향한 소망 때문이어야 합니다.

본 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신자가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하는 보편적인 기도와는 그 맥락을 달리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하면 우리가 행하는 통상적인 기도 내용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대개 자기만족을 위해 행해집니다. 다윗의 기도에서도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내용을 보면 다윗의 기도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기 처지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기도의 의미는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에서 구원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다윗이 추구하는 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가 우리와 그 맥락을 달리한다는 것은 우리는 육신의 만족에 초점을 두는 반면 다윗은 영혼의 만족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절의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는 내용이나 4절의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기쁨이 곧 영혼의 만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 107: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보면 영혼의 기쁨이나 영혼의 만족은 모두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기에 다윗의 기도는 영혼의 만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익숙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시편에서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생소한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숙

주일오우설교

시 86:1-17

가난한 자의
기도

(90강 9.9일 설교)

하게 사용하지 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만큼 영혼이라는 단어를 어색해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혼이라는 단어를 육신과 전혀 다른 보이지 않은 어떤 신비적 물체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개 보면 영혼을 내게 있는 육신과 또 다른 무엇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 나온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죽은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 나오는 장면이라는 사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혼을 육신과 또 다른 어떤 정신세계 정도로 이해한다면 육신의 기쁨이나 만족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영혼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단어로 다가오면서 성경의 깊이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은 사실 인간의 존재를 구분하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나누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면 영적인 존재이고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존재로 나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를 영, 또는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만족은 세상 것으로 가능하지만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고후 3:5).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은 ‘ 과연 나는 육신의 차원이 아닌 영혼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입니다. 현대 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육신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차원에서 찾습니다. 결국 기도한 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도라는 것에 실망을 하게 되고 결국 ‘기도해도 소용없다’ 라는 생각과 함께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찾고 육신을 풍족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우러러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7절의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환난을 겪을 때 86편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으로 인해서 다윗은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우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가난과 궁핍이 물질적인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가난과 궁핍을 말했다면 다음에 이어질 기도 내용은 물질의 풍성과 연관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영혼의 보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감지했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 자기 영혼의 상태에서 그 어떤 문제도 감지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라고 생각했다면 영혼을 보존해 달라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다윗이 감지한 영혼의 문제가 바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라는 말에서의 구원의 의미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영혼에 기쁨이 있고 만족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환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사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고 말합니다. 다윗의 환난은 교만하고 포악한 무리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의 치려는 자들로 인한 환난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교만하고 포악한 무리들로 인해 환난을 겪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떨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등으로 그 마음이 평안치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가난하고 궁핍한 영혼의 문제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보존과 함께 구원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윗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하고 포악한 무리들을 치시고 다윗을 환난에서 건져 주심으로 영혼이 보존되고 기쁨이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른 말을 합니다. 17절을 보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

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윗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은총의 표적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은총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잘돼서 그들을 이기는 것일까요? 이런 방식의 은총의 표적은 없습니다. 인생은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되고 못되는 것으로 경쟁하거나 신앙이 낫다는 우월감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다윗의 대적은 다윗을 밭바닥으로 끌어 내리려는 사 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욥기서 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의 신앙을 세상에서 누리는 재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 을 치도록 허락합니다. 욥은 사탄에 의해서 자식과 재 물을 모두 잃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욥의 믿음을 재물과 연관시킨 사탄이 많이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15절). 이것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문제에서 해결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의 표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 해 있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도우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으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 음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된다면 신자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습 니다. 이것이 영혼의 기쁨이며 만족입니다.

신자는 기도는 육신의 편안함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 의 긍휼과 은혜를 잃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 다. 육신이 편해진다면 만족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다른 문제로 인해서 또 다시 불 안과 두려움에 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신앙의 세계를 살 수 있습니다.

본 문을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인데,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 지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흙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용도의 그릇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는 오직 토기장이며 토기장은 흙에게 의견이나 희망 사항을 물어서 그 뜻을 반영하고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흙은 오로지 만들어지는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예 레미야는 이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덧붙여서는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한 대로’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한대로 나를 도우시고 책임져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흙이 원한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본문의 토기장이 비유는 하나님의 절대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 관계의 의미를 신자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의 신자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라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이라고는 말하지만 도무지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거나 섬기는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피조물이면서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려놓기 보다는 끝까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된 경우가 얼마나 있었든가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서 원하는 일을 하며 목표했던 위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되었다고 선불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겉으로는 자신의 뜻대로 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아닙니다.

수요일설교
렘 18:1-12

토기장이 비유

(48강 9.12일 설교)

무엇보다도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자기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이지만 내 뜻대로 살고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내 운명의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말을 수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성은 물론이고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말을 달갑지 않게 여깁니다. 자신의 운명이 보이지 않는 신의 손에 좌우된다면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신의 뜻이 아니면 안되고, 반대로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신의 뜻이라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생명의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생명에 속한 하늘 백성이라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흙에 따라 그릇의 용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좋은 흙으로 귀한 그릇을 만들려고 할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흙이 좋지 않다면 귀한 그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아가 바라보는 유다는 좋은 흙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그 같은 자신들의 운명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예레미아가 유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유다를 향해서 선지자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11절)고 외칩니다.

유다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유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을 존재들일 뿐입니다. 토기장이인 하나님은 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릇을 만들다가도 얼마든지 부숴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진흙인 유다의 본분입니다. 어떤 그릇이 되 고자 하기 전에 그릇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흙이면서도 내가 어떤 흙인가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무작정 좋은 그릇,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 의미는 는 무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7,8절을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말합니다.

부수거나 멸하려 하는 민족도 악에서 돌이키면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9,10절을 보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들이 악을 행하면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한번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인간이 하기에 따라 변동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인간이 하기 나름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바뀌는 것이라면 결국 운명은 인간의 손에 달렸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자신의 계획을 위해 살아가는 고집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의 복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역시 인간에게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가 선지자의 말을 헛된 것으로 간주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의 완악한 대로 자기 계획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악에서 돌이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부서질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악한 길로만 행하다가 부서지는 운명으로 끝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의전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항상 완고한 내 고집으로 행하는 우리를 간섭하시고 고쳐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운명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80장
교 독 : 48(시106편)
기 도 : 조규현 장로
찬 송 : 379장
성 경 : 눅 7:18-23
말 씀 : 예수로 인한 실족(30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96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6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86장
기 도 : 조길옥 집사
찬 송 : 442장
성 경 : 시 90:1-17
말 씀 : 우리의 연수(94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86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52강)

■ 교회소식 ■

1. 예배 후에 제직회 모입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영민 장로 오후 - 한옥섭 권사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다

사람은 매일 같이 어떤 일에 있어서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에 대한 후회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겪는 일들이다. 출근을 할 때 버스를 탈지 택시를 탈지, 점심시간에는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택시가 버스보다 지체 되었을 때, 점심 음식이 기대보다 맛이 없었을 때 후회를 한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다. 미래를 모른다는 것은 자신의 결정과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모른다는 뜻이다. 때문에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나쁜 결과가 있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말걸” 라며 후회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후회는 미래를 모르는 인간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만약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분명 후회할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를 알기에 항상 자신에게 최선이 되고 유리한 결정과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모두 아는데도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후회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후회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삼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한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에서 좋은 것을 남겨 둔 것이 원인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사울로 인한 하나님의 후회를 과연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는 분이다. 따라서 사울이 어떤 인간이며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어떻게 행할 것인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음이 마땅하다. 그런데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 하시는가? 이것은 전능하시다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회하는 하나님은 무능하고 답답한 하나님으로 비취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한 대민 23:19).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다면 도대체 사울에 대한 후회는 뭔가? 결론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의미하는 후회가 아니란 것이다.

왕은 인간이 원한 것이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다스릴 영웅과 같은 왕을 세워주길 원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인간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에게서도 드러난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 되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배신을 드러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후회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괜히 세웠다” 라는 의미의 후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자기 결정과 선택에 대한 후회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나 어울리는 것이지만 인간을 아시고 미래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나를 위한 길로만 달려가는 우리를 보시고도 후회가 없으시다. 다만 한탄하실 뿐이다. 즉 하나님의 후회는 한탄의 의미로 이해할 문제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한탄하시면서 여전히 다가오시고 다스리시며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다.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게 한다.